

건축문화 사랑상

Vol.054 10. MAY 2014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상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4.5 054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그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건축문화사랑 안길전·국원식·김남중 공동발행인 외
 편집위원 일동

지자체 임의지침 등 규제 발굴 등을 위한 “호남권 건축사 간담회” 열려



장수우체국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
 (주)성림 종합건축사사무소 김 문 희 건축사

시론 02

“2014 대한민국 건축 문화제를 통해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홍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_ 정광민

기획 03

지자체 임의지침 규제 발굴을 위한 호남권 건축사 간담회 열려

설계경기 04

장수우체국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사람 & issue 05

건축설계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_ 박상찬

동양건축 06

동아시아의 목탑(木塔)_3부 >> 중국 - 1000년의 세월, 천하제일의 불공사 석가탑 _ 신웅주

螢窓雪案 07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으로 취임한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_ 염환석

NEWS 08~10

동신대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사)한국주거학회 회장에 취임 /
 건축문화사랑 신문, 2014년도 신입 논설위원 및 편집위원, 학생기자 위촉

인터뷰_사람&issue

전북/건축사사무소 태솔 박상찬 건축사



인터뷰_螢窓雪案
 광주/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염환석 교수

※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4 대한민국 건축 문화제를 통해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홍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정 광 민 회장/건축사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건축사사무소 서로
sr98@paran.com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고 넓게는 도시의 환경을 좌우하는 건축가는 마땅히 공인(公人)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가의 사회적 책무는 행복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건축가들이 주관하는 ‘2014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열린다.

건축은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예술형식이다. 건축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정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건축의 양식이나 행위 및 건축가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지금도 생명체처럼 진화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건축의 양적인 확대, 규모의 대형화, 양식의 다양화 등도 사회적 변화 또는 경제적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건물이 선다는 것은 사회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을 가지며,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고 넓게는 도시의 환경을 좌우하는 건축가는 마땅히 공인(公人)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가의 사회적 책무는 행복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건축과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건축가들이 주관하는 ‘2014년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열린다. 오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현대 건축물의 현주소와 세계적 건축가의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건축문화제가 될 것이다.

건축문화제를 통해 문화의 근본을 추구

이번 문화제의 주제는 ‘컬티베이트(Cultivate)’이며, Culture의 어원이다. 그 의미는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화”의 근본을 추구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번 문화제의 전시와 행사를 주관하는 총괄 디렉터와 건축문화제 위원장으로 위촉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는 이번 문화제의 주제를 설명함에 있어 “건축은 문화에 봉사하는 물리적구조물이며 동시에 문화 그 자체다. 건축은 공간과 형태를 만들며 이를 통해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삶 자체를 형성해 간다. 인 프라로써의 건축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의미를 발견해내고 그 의미를 장소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건축이 문화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세심한 눈으로 찾아내어 키워나가야 한다는 명제가 건축에서 Cultivate의 의미이다.”라고 한다.

행사기간에 같이 진행되는 일들로는 ‘작은건축/동네 (Small architecture/neighborhood)’란 주제의 일반 공모전(제3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을 비롯해 ‘올해의 건축가 100인 국제전’, ‘올해의 건축Best 7’, ‘젊은 건축가전’,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컬티베이트전’ 등의 다양한 전시와 ‘국내외 건축가 초청강연’, ‘동아시아 문화도시 발전 전략과 건축의 역할’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등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의 공식 후원으로 진행되며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최하고 광주건축가회가 주관한다.

작지만 큰 조직이라 생각하는 광주건축가회는 예총연합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시전을 광주미술협회와 공동주관하고 있고, 광주아트페스티벌(예총단체 10개 단체참여)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토요문화학교(행복을 담은 건축학교)를 매년 봄, 가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건축·도시문화제에도 매년 참여하여 광주의 건축문화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 밖에 전문건축인들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2015년 세계디자인 연맹총회’를 비롯하여 지역의 건축과 예술행사 참여, 지역 환경에 맞는 법규개정, 고대 및 근대 건축물 정비보존 등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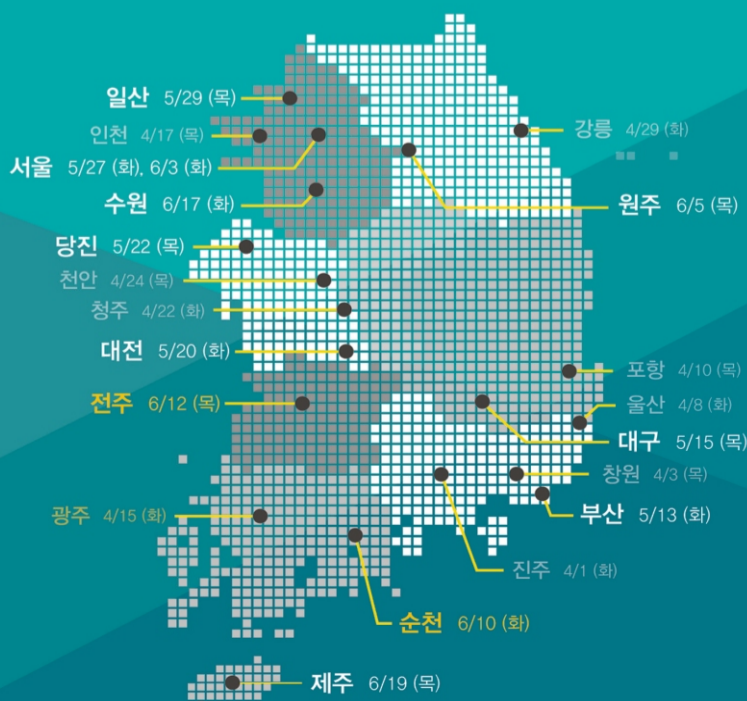
건축은 문화예술의 한 부분이다.

흔히 대한민국의 IT산업, 조선산업, 건설기술 등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평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인만의 섬세한 손재주와 아이디어가 건축 디자인에서도 반드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디자인이 돈이 된다는 말도 있다. 경험상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건조환경은 참담하리만큼 최악이다. 특히 건축설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건축주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만연하여 도시가 삭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것은, 건축은 공공적 자산이기에 수익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건축은 돈벌이 수단인 토건업의 일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한 부분임과 동시에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광주에서 전시되는 작은 건축/동네(Small architecture/neighborhood)는 시기적절한 전시가 될 것이다.

아무썸튼, 이번 건축문화제가 광주의 도시환경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시민들에게 우수한 건축가들의 능력과 작품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건축가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내방하는 많은 국내외 건축관계 전문가들에게 빛고을 광주의 멋과 맛과 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나아가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다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끝으로 행사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광주광역시와 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이번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성공적인 문화행사가 되도록 우리 시민들과 건축인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2014 MIDAS Technical CONCERT



행사 지역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www.MidasArchi.com/concert

본 기술 콘서트는 건축사실무교육(자기개발분야 1시간)이 인정됩니다.

행사 관련 문의

이혜린 031.789.4268 / hrlee@midasit.com

이정재 031.789.2019 / jjlee@midasit.com

2014년 호남권 건축사 간담회

지자체 임의지침 규제 발굴을 위한 호남권 건축사 간담회 열려

- 국토교통부,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회 돌며 간담회 진행
- 호남권 간담회, 지난 4월 30일 광주건축사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원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를 조사하여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말에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해당 과에서는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지역 호남권에서는 지난 4월 30일 광주건축사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전례없이 호남지역 건축사 20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그 열기를 통해 임의규제에 대한 불평과 불만 및 애로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건축분야에 한정된 간담회에 불과했고, 건축과 관련된 타 분야의 임의규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반쪽자리 간담회가 전이행정으로 비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건축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축분야의 규제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지자체 임의지침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임의 규제는 지역 경관·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기능 강화, 이웃간 분쟁 예방, 행정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도 있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자체 임의지침 등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

- 소극적 행태, 또는 집행업무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 잔존, 지속 재발 또한 법령 불일치 조례 및 지자체의 자의적인 유권해석도 사실상 규제로서 기능함으로써 건축사업의 사업기간, 사업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

- 기존 관행의 답습, 감사를 의식한 회피성 인허가 처리등으로 유발되는 임의규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나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건축주 등은 인허가를 위해 마지못해 수용 하면서도 공정성·형평성·청렴성 등을 의심하는 불신풍조 초래

▶그간 진행 사항

□ ('13.8, 건축분야 조사 착수)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지침을 운용하여 국민들의 건축 행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

○ 17개 시도 등을 조사한 결과 50건의 임의규제 발굴(8. 16 ~ 10.15)

○ 임의규제를 운영하는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규제 발굴에 한계

□ ('13.11, 지자체 의견수렴 회의), 임의 지침 정비방안 논의

○ 사안에 따라 폐지, 법령 등으로 제도화(국토부 표준기준 등) 및 조례 반영

○ 지침(기준)등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및 절차보완등

□ ('13.12~'14.2, 임의 지침 정비)

○ 과도한 임의 지침 폐지 및 양성화(15건)

○ 특별시·광역시 산하 구청의 건축심의 기준 폐지(3건)

○ 안전·성능기준 등 지역적 차별없이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공통적인 기준과 절차 ⇒ 법령 등 제도화 추진(10건)

○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준 ⇒ 조례화 등 (19건)

○ 지역경관 및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운용 중인 디자인 지침 등은 조례(경관조례 등)로 정하도록 하여 지침 투명화와 객관성 확보(6건)

▶'14년도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1. 임의규제 및 조례의 법령 적합성 등 전수조사

□ 추진방향

○ 건축 임의지침 및 건축조례의 법령 적합성 전수 조사
- 건축사를 대상으로 전국 4개(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임의지침 사례 조사
-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전국 172개 지자체 건축조례(법령 위임 : 45개 조문, 74개 기준) 적법성 조사

□ 추진계획

○ 조사 및 분석후 일제 정비계획 수립(6월)
- 과도하거나 법령과 불일치한 지침(조례)은 폐지, 안전 등 필요한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 반영

2.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국토부)

□ 운영 방안

○ 국민불편을 주는 유권해석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하여 중앙건축 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5~6명)로 구성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

□ 향후 계획

○ 지자체, 건축사협회를 통해 접수받거나 국토부 민원중에서 선정하여 매월 1~2회 정기 개최(연내 30건 이상 추진)

3.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표준 기준 마련

□ 추진배경

○ 지자체별 건축심의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 '건축심의 표준기준'을 제정
- 심의기준 제개정으로 심의대상, 심의내용, 심의범위, 절차, 제출서류 등을 명료화
- 지자체 재량권 부여 및 투명성 확보

□ 향후 계획

○ 전국 지자체 심의기준을 분석후 표준기준 마련('14.9월)

4. 숨은 규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관계자 등 업계의 관습적 업무행태, 집행 업무의 편의성 등으로 임의지침이 존속되거나 재발하고 있는 실정

□ 운영 방안

○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cafe) 운영
- 신고센터 :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 인터넷 카페 : <http://cafe.daum.net/promotearch>
○ 지자체 건축행정건실화 점검을 통해 규제 실태 등의 평가 및 공개(10월)
- 우수기관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미흡기관은 언론 공개 등을 통해 지자체의 경각심 유도

○ 시도 건축과장 회의 정기 개최(분기별)
- 임의지침 등 규제정비 이행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 논의

▶ 지자체 임의지침 등 운영사례 호남권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①지침명(관계 법령명)	법44조(대지와 도로관계),도시계획조례
②관계지자체	담양군
③분야	건축, 개발행위
④적용시기	건축허가 또는 신고
⑤공개방법	관련조례 등

구 분	내 용
①적용지역	비도시계획구역
②대상시설(건축물)	건축신고(농가주택)
③적용기준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인정기준(건축법2조 11호)에 적합한 부지반 개발행위허가 함.
④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비도시계획구역에서 건축법적용제외
⑤개선방안	현황도로(실제포장도로)인정기준 완화
⑥비고(기타의견)	허가권자 허가권 남용

구 분	내 용
①지침명(관계 법령명)	제1종지구단위계획 자문기준
②관계지자체	광주광역시
③분야	적용용적률 계산 방법
④적용시기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⑤공개방법	시 공고 또는 인. 허가 업무시

구 분	내 용
①적용지역	주거지역
②대상시설(건축물)	공동주택
③적용기준	중세분화 된 주거지역에서 중상향
④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용적률산정기준
⑤개선방안	-가중치 1.3 - 1.5적용 -제1종주거지역 기준용적률 150% - 200%상향
⑥비고(기타의견)	기부채납 20,000㎡이상 제공의 경우 상한용적률43% 인센티브 혜택

구 분	내 용
①지침명(관계 법령명)	건축법, 지적법
②관계지자체	전남 지자체(일부)
③분야	건축허가, 지적분할
④적용시기	건축물사용승인

구 분	내 용
①적용지역	모든 지역
②대상시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건축물
③적용기준	계획선분할 대지면적 변경시 측량성고도 인정여부
④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건축담당자와 분할담당자 의견부합
⑤개선방안	측량성고도로 인정해서 경미한 변경처리해야함

구 분	내 용
①적용지역	나주시
②적용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항의 2호.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호.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이상 규정이나 - 나주시 조례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항의1호.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호.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호.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의 규정이나 - 나주시는 나주시의 조례가 개정이 아직 안되었다는 이유로 현재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건축법)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나주시 조례)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나주시 조례) 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과도한 일조권 적용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재산권 제약
④개선방안	개정된 건축법의 일조권 적용

*상기 사례는 조사된 의견 중 일부이며, 임의규제 해당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_ 설계경기

우정사업조합사무에서는 대국민우정서비스 향상과 우정사업의 영업기반 확충 현 장수우체국 청사의 노후화와 업무 및 부대 공간 부족에 따라 창구, 소포 및 집배 등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우정사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사업 효율성을 확보한 창의성 있는 참신한 작품을 선정하고자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금상 : (주)성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은상 : (주)호마 건축사사무소
동상 : 전원 건축사사무소

김문희 건축사
서영인 건축사
박순오 건축사

장수우체국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금상 김문희 건축사(주)성림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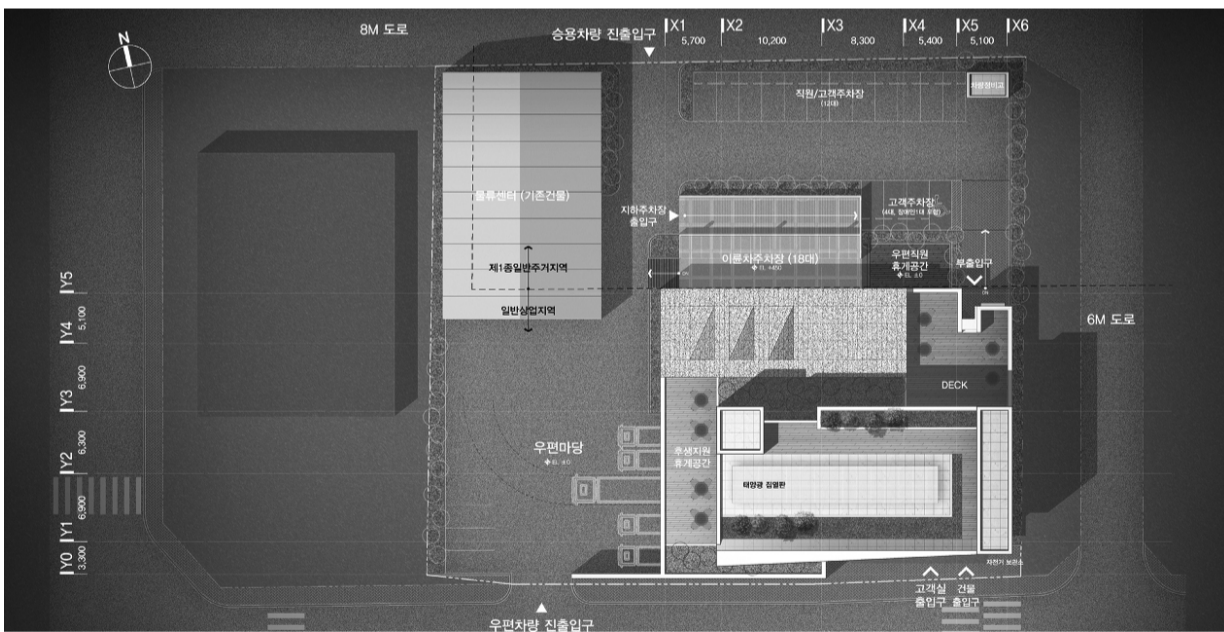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를 싸리재로 5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3,174㎡
건축면적 : 1,221.53㎡
건 폐 율 : 51.09% (법정 80%)
지하 1층 : 583.61㎡
지상 2층 : 362.58㎡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칼라알루미늄복합패널, 압축성형시멘트패널, 화강석, 징크슈트, 칼라아연도 골강판

연 면 적 : 2,399.49㎡
용 적 륜 : 88.20% (법정 1,300%)
지상 1층 : 1,074.21㎡
지상 3층 : 379.09㎡
최고높이 : 17M



은상 서영인 건축사(주)호마 건축사사무소



LANDMARK POST
지역의 상징우체국
우체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체계적이며 질적이며 효율적 환경을 조성함

FUNCTIONAL POST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우체국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우편마당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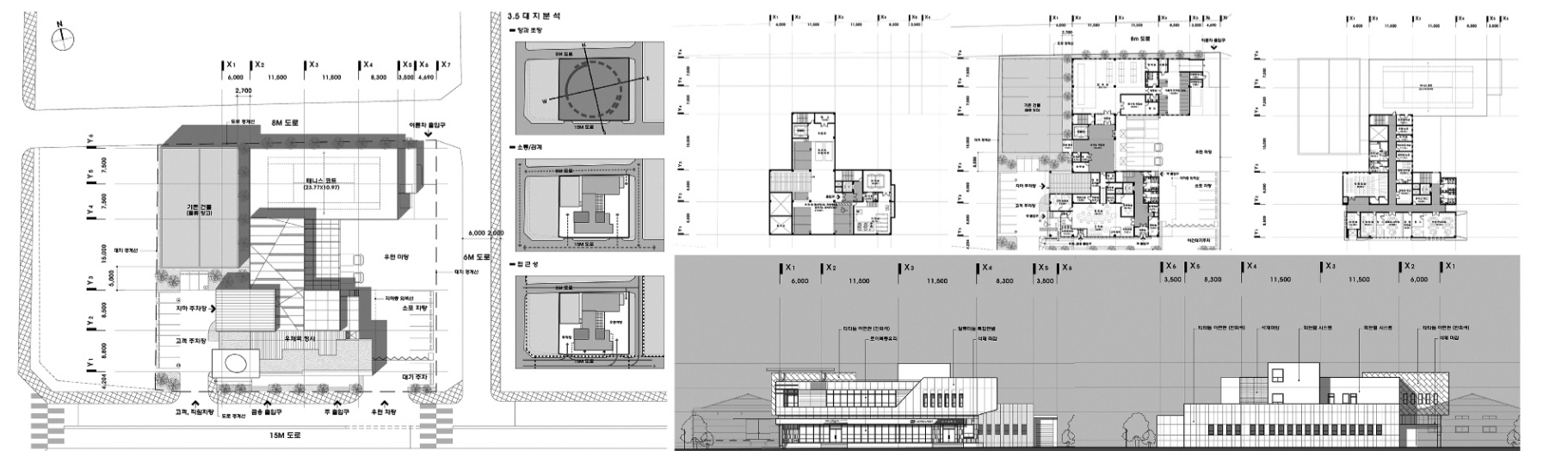
SUSTAINABLE POST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체국
남향배치와 PV를 설치한 친환경 건물 외미/성능을 최소화한 에너지절약형 건물

POST OFFICE
Local Identity

우편마당
다기능 작업실

남향배치 (+)
PV/녹화 (+)

동상 박순오 건축사 전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기술’과 ‘청렴’... 그리고 ‘감각’과 ‘고집’이라 생각합니다. _ 박 상 찬 건축사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태솔의 박상찬 건축사.. 그는 건축사가 되기까지 일반적인 건축사들이 거쳐 온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다. 그 다른 방향성을 갖고 한 길을 걸었던 그의 이야기들과 건축에 대한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들어 보기자 지난 5월 2일 편집위원이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다음은 박상찬 건축사와 나눈 내용이다.



2013년도 완공_전주시 서신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축사로서 걸어오신 길

이곳 전라북도 전주에서 나고 자라온 저는 어릴적 부터 책이나 노트의 빈곳만 보이면 낙서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자연스레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감각도 익히게 되어 군대 제대 후에는 미술학원과 산업디자인회사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2년간 디자인 실무 경력을 쌓다가 집안 문제로 고향인 전주로 내려오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건축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건축설계 실무도 쌓았고, 그 경험을 건설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갖었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실무경험 덕에 건축사로서의 역량을 조금이나마 더 갖추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직접 손으로 스케치하는 부분은 확실히 감각이 있다고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 동안 확립하신 건축철학에 대해...

건축에 대한 많은 선배님들의 철학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저 자신만의 철학을 갖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만, 건축의 전 과정을 기획, 관리를 해야 하는 건축설계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기술과 청렴, 그리고 감각과 고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과 청렴은 전문가와 경영인으로서의 지식과 소양이며, 감각과 고집은 건축사에게 필요한 역량이자 책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건축사로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직업인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행한 작품들이 건축주들이나 사용자한테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라고 봅니다. 부끄러울 때는 간혹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행정관서에 아쉬운 부탁을 해야만 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가 드러나 자부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때가 가장 부끄럽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와 그 이유는...

‘딱 누구입니다’라는 것보단 모든 건축사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신다면...

태솔 건축을 개업한지 약 4~5년이 되었습니다. 대표작이라고 내놓을 만한 작품은 없지만 지금까지 한 작품들 중에 선택을 한다면, 2010년 완공된 전북 부안 리비치펜션, 2011년 완공된 익산시 함열읍 338 단독주택, 2013년 완공된 전주시 서신동 도시형생활주택 등입니다. 앞으로 대표할만한 좋은 작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

2009년도에 지중해 풍의 펜션을 원하는 부안지역 건축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그런 풍의 펜션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해야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별수 없이 후배와 함께 갔습니다. 사실 그때 후배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었으나, 저 때문에 그 후배도 꼬박 이틀 동안 죽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미안함이 새삼스레 떠오르지만 지금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2012년도에 주거 및 근생시설 작업에 있어 건축주 일행과 건축기행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동행한 시간 내내 과분할 정도로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함박웃음을 잊을 수 없으며, 지금도 저에게 보람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이 있으시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직 큰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건축사들이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봉사에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현재 다소 어려운 건축경기에서도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는 여러 선후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경쟁자가 아닌 동업자로서 생각하고 서로 보듬어 가면서 건축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갔으면 합니다.

건축사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에 순응하면서 건축사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무실을 내손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꿈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고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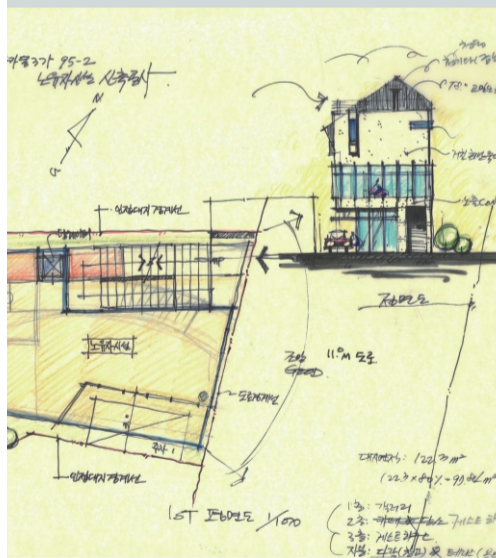
취재 : 서재형, 박신남,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전북 전주 / 건축사사무소 태솔 박상찬 건축사



▲ 편집위원들과 인터뷰 중인 박상찬 건축사



▲ 2013_전주시 다가동 노유자시설 스케치

박상찬 건축사가 건축 설계에 참여한 대표작품들



▲ 2010년 완공_부안 리비치펜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35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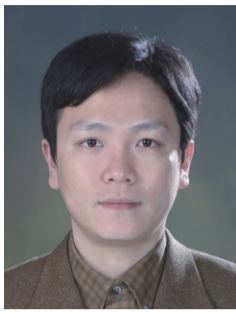
▲ 2011년 완공_익산시 함열읍 338 단독주택



▲ 2013_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청사

동아시아의 목탑(木塔)_3부

» 중국 - 1000년의 세월, 천하제일의 불공사 석가탑



신 응 주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wjshin@chosun.ac.kr

- 1부 : 한국 - 호국불교의 황룡사, 구산선문의 쌍봉사 - 2014년 3월 게재
- 2부 : 일본 - 목탑의 나라, 도래인과 오중탑, 삼중탑 - 2014년 4월 게재
- 3부 : 중국 - 1000년의 세월, 천하제일의 불공사 석가탑 - 2014년 5월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신응주 교수는 전통건축과 문화재 보존·복원에 관한 전문가로 현재 대학에서 동아시아의 건축문화와 한국건축사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공사 석가탑 전경



목조건축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불공사 석가탑의 공포



불공사 석가탑의 처마



불공사 석가탑의 내부 계단



운강석굴



운강석굴 내부의 목조 중층 누각을 번안한 탑

중국 - 1000년의 세월, 천하제일의 불공사 석가탑

중국 목탑의 시원

후한(後漢)이 멸망하자 중국 대륙은 오랜 혼란기에 빠지고 황허[황하, 黃河]지역은 북방민족에게 유린된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의 고려시대에 유행한 민중 불교보다 300여 년 이전에 중국에서도 불교는 민중 사이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민중불교의 전파와 더불어 나타난 것은 석굴(石窟)과 탑(塔)인데 탑은 세월의 흐름 앞에서 소실되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고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석굴 안에 새겨진 목탑의 흔적들이다. 중국의 3대 석굴로 유명한 둔황[敦煌], 원강[雲崗], 룡문[용문, 龍門]을 비롯하여 마이지산[맥적산, 麥積山], 텐룽산[천룡산, 天龍山], 상탕산[향당산, 響堂山], 치사산[루하산, 樓霞山] 등에 산재한 많은 석굴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조성된다.

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이 기원이지만, 그 형태와 의미는 불교가 널리 전파되는 과정에서 점차 바뀐다. 주목할 점은 당시 유행하던 중국 목조건축의 기법으로 조성된 층탑(層塔)의 모습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유입된 불교가 탑으로 표현될 때 상당한 기술 수준을 유지한 누각(樓閣)의 건축기법이 차용된 것을 잘 보여준다. 결국 중국건축의 영향으로 목조건축을 주종으로 삼은 한국, 일본도 목조불탑(木造佛塔)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자랑, 천하제일의 불공사 석가탑

중국 서북지역에 위치한 산시성[산서성, 山西省] 잉현[응현, 應縣]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탑이 있다. 현존하는 목탑 가운데 가장 높은 포공사[불공사, 佛宮寺] 석가탑이다. 1056년 요(遼)나라 때 건축된 이 목탑은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탑의 앞에 서면 1,000년 전 인간의 힘으로 만든 탑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에 압도된다. 상륜부를 포함하여 높이가 67m, 1층의 지름이 30m이다.

탑의 1층에는 높이 10여m의 석가모니 소상(塑像)이 있고 양쪽 벽에는 금강천왕(金剛天王)과 제자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문미(門眉) 윗부분의 벽판(壁板)에 그려 넣은 3폭의 여공양인상(女供養人像)이 눈길을 끈다. 이들 불상과 벽화에는 요(遼)나라 당시의 건축 기법과 전통이 그대로 담겨 있다. 1층 서남쪽의 나무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탑의 각 층마다 바깥쪽으로 넓은 난간이 있어 이를 통해 탑 밖으로 나와 난간을 따라 돌면서 잉현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고, 멀리 형산[항산, 恒山]과 쌍간강[상산하, 桑干河]도 보인다.

외견상으로는 5층인데 각 층 사이에는 거대한 목탑의 구조를 지탱하는 특수한 시스템인 트러스 형태의 평좌(平座)로 불리는 암층(暗層)이 존재한다. 중국의 학회에서는 명오암구옥(明五暗九屋)이라고 얘기하는데, 겉에서 보면 5층이지만 각 층 사이에 암층이 있어 구조적으로는 9층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 목탑의 가장 경이로운 점은 1,000년 전의 원형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역대 왕조인 금(金), 원(元), 명(明), 청(淸)을 거치며 대규모의 증축과 개축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의 강한 지진을 겪었으나,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아 중국 고대 목조건축의 뛰어난 내진성(耐震性)을 입증한다. 1949년 이후 중국정부는 고대 목조건축의 기적이라 불리는 목탑을 보전하고자 여러 차례 탐측과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1974년 복구작업 과정에서 오나라 때의 채약도(采藥圖)와 경권(經卷) 등 중요한 유물들이 발견된다.

한반도 거대 목탑의 복원모델

“황룡사 목탑을 복원한다면 그 모델은 불공사 석가탑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홍식 명예교수는 중국 산시성의 불공사 석가탑을 한반도 거대 목탑, 특히 황룡사 구층목탑의 복원모델로 지목하고 있다.

불공사 석가탑은 1238년[고려 고종 25년], 몽고의 병화(兵禍)에 한 줌 재로 변해 사라져 버린 신라 황룡사 목탑을 복원하기 위한 전범(典範)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두 탑은 건축연대에서 시대 차가 있다. 황룡사 목탑은 634년[신라 선덕왕 12년], 중국 유학 후 귀국한 승려 자장(慈藏)의 건의에 의해 착공되고 불공사 석가탑은 1056년[요 청수(淸守) 2년]에 완공되므로 400여 년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 평면형태, 외형과 구조[황룡사 목탑의 경우 현재까지 발표된 추정안] 등 같은 계보의 탑이라고 보기에는 억지스러움이 더 강하긴 하다.

비록 ‘삼국유사’에 그 구조와 규모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고, 전국을 기행하던 고려시대 시인 묵객들의 시구절에서 그 편린(片鱗)을 엿볼 수 있을지라도 ‘확실한 자료’가 없어 황룡사 목탑을 비롯한 우리의 거대목탑을 복원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대략의 높이와 몇 칸 건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문화재를 복원해 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의 문화 재창출의 측면에서 학계 일부와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황룡사 목탑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고, 실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관련된 연구와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과거 600여 년간 건재했던 황룡사 구층목탑이 현재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었다면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이탈리아 로마의 판테온 및 콜로세움, 일본 나라의 호류지 오중탑이 전혀 부럽지 않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 아니 세계인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었을 텐데.

그 동안 불공사 석가탑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목탑에 대한 많은 고건축 전공자의 관심은 아쉽게도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린 고대의 거대 목탑들에 대한 향수와 강한 애착이 아닐까? 그 열망과 발산이 황룡사 구층목탑의 복원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 불공사 석가탑 앞에서 (2012년 1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동아시아의 목탑(木塔)을 연재해 주신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신응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으로 취임한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염 환 석 교수와의 만남

지난 3월 21일 조선대학교 제1공학관에서는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4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향후 2년간 광주·전남건축학계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이 취임했는데 광주대학교 염환석 교수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염환석 교수는 학회 회장 이전에 이 지역에서 건축공학자이자 구조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은 지난 4월 28일 염환석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우리지회는 훌륭한 원로교수님, 전임 지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회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잘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으로 마음을 조려봅니다. 저와 저희 임원진들은 항상 말을 줄이고 귀를 열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으로서 향후 추진하실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전임회장님들께서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셨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지회회원들과 지역도시발전을 위한, 건축 관련 전공 학생들을 위한 사업(디자인캠프 등)들을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잘 발굴하고 적절히 검토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 위상제고를 위한 사업들에 협조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건축 삼단체(건축학회, 건축사회, 건축가회)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건축도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지회 사업으로써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광주광역시와 연계하여 건축에 관련된 내진구조성능, 에너지 및 친환경성능 평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자로서 걸어오신 길(학업 과정/기타 사항 등)

광주에서 태어났고, 전남대학교에서 학, 석, 박사를 졸업하여 광주대학교에서 근무한 광주 토박이로써 광주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려고 합니다.

연구 업적 또는 관심분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전단거동과 부착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요업적이고, 건축구조설계, 건축구조진단 등이 관심분야입니다. 이러한 주요 연구 분야 내용을 잘 살려 광주시의 발전과 학계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학계의 비전 또는 발전방향

우리 지회는 예전에 비해 조직이 정비되고 커졌습니다. 이제 회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스스로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학회가 되어야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 자체뿐만 아니라 건축사회와 건축가회와 같은 단체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는 그런 방향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확립하신 건축 학자로서의 철학은

거창한 철학보다는 평소 갖고 있던 소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의 강의와 연구, 대한건축학회, 콘크리트학회, 건설관리학회 등 학회활동을 비롯한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청 등의 심의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은, 어떠한 일이든 일의 시비를 분명히 하되 균형 감각을 갖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임해야한다는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건축인 또는 제자들에게 당부 한마디...

흔히 건축은 종합예술이라 합니다. 수많은 문화와 문명이 한데 어우러져 건축이 탄생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인들은 여러 분야의 사람을 만나야 하므로 대인관계에 주위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때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여야, 즉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건축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기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음은 물론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상대방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이런 인터뷰 기회를 통하여 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서재형, 박신남 건축사기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광주/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염 환 석 교수

- 학력
1983.02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학사)
1985.02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석사)
1994.02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박사)
- 경력사항
1989.03 ~ 현재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2013.06 ~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2013.12 ~ 현재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014.03 ~ 현재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부 지회장 외 다수
- 자격사항
1995.12.26 건축구조기사



▲ 효천지구 제일건설 APT 현장건축



▲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가족회사 교류회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문화 **사랑** 신문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외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1/2광고 : 300,000원
- 하단1/3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 금 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김 소 라 학생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옥, 어디까지 배워봤니」



우리학교 본부 앞, 신축박물관 앞에는 웅장한 정자가 있다.

학생들은 자연 속 어우러진 정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매력적인 공간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우리학교의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이하 한옥센터)'이다. 한옥센터는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님을 중심으로 대목장, 목수로 구성된 전문인력양성센터이다. 교육·체험 관련 활동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까지 두루 섭렵한 한옥 센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한옥센터는 건축사 및 실무자에게 한옥교육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어린이부터 청소년, 외국인까지 폭넓은 체험활동도 실행되고 있다. 교육생 및 체험생들은 한옥설계, 한옥모형실습, 디지털설계(CAD) 등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결과로 전북 건축문화제 한옥기획전시나 한옥공모전, 농촌건축학회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학교 학생들의 또 하나의 쉼터가 된 육묘장, 사모정까지 설계·건축하였다.

여기서 온점찍고 마쳤다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한옥센터는 농촌부터 멀게는 라오스까지 2010년부터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고창, 진안 등의 전북의 농촌에 찾아가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집을 개선해주고 관련캠프에 재능기부를 하고, 라오스에는 다가오는 2015년 초등학교 건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센터는 이처럼 다양하게 꼭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고 있다.

앞으로 한옥센터는 건축사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4년도 6월에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고 한다. 한옥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토부가 최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대학교 한옥센터에 놀러! 배우러! 체험하러! 오시길 바란다.

동신대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사)한국주거학회 회장에 취임

-임기1년 직무 수행, 내년 4월 광주서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 2015 컨퍼런스 개최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가 지난 5월 1일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으로 내년 4월까지이다.

한국주거학회는 1989년에 창립되어 건축·주거·실내건축·도시·복지환경·심리·사회학·경제학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활동하는 학회다.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 본부가 있으며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손승광 교수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칼라퐁푸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APNHR) 2013 컨퍼런스'에서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한 본지와와의 인터뷰(2013년 12월호 게재)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유치된 '2015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광주극장 관사 '영화의 집'으로 새롭게 태어나...

-문체부 주관 2014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 최종 선정, 유희 공간,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



지난 4월 22일,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부가 주관하는 '2014년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에 광주극장 관사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밝혔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사업은 유희공간을 문화와 공공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가 지난 2011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광주극장 관사를 대상으로 한 '열린 문화공간 - 영화의 집'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광주시는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총 2억원을 투자해 광주극장과 관사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반영해 리모델링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영화와 공연을 중심으로 도심 속 열린 문화공간 '영화의 집'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화의 집'에서는 그동안 광주극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영화감독과의 만남, 영화인을 위한 강좌, 공연, 전시 등 영화 관련 콘텐츠 등이 보강 확대돼 동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지역 문화단체와 동호회가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 기획전,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 영화동호회, 지역 주민, 방문객 등이 소통하며 교류하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광주극장은 1935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인 1200여 석으로 개관해 이제 강점기에 성장로4-5가의 중심이자, 민족 문화의 거점으로 영화뿐만 아니라 가극, 창극,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호남권은 4곳 선정

-광주 동구 충장동 등, 전남 목포시 목원동, 전남 순천시 향동 등, 전북 군산시 월명동 등

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구상(안)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광주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아시아문화전당(舊전남도청) 주변 구도심 상권활성화
		전북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 문화지구 조성
		전남 목포시	목원동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소규모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옥상녹화, 빗물활용 등) 만들기 생태하천, 부유성터 복원	

(호남권 선정도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호남권에 4개권을 선정했다. 지난 4월 28일 국토부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전국에 13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지역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시경계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 경제, 복지, 도시, 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도시경계기반형 선도지역은 부산과 청주 2곳이 지정되었고, 쇠퇴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이상 일반규모 6곳),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이상 소규모 5곳) 등 11곳이 지정되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9월경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17년까지 4년간 시행된다. 재정지원은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비(0.5~2.0억원)와 사업비(60억원~250억원)가 4년간 국비로 지원되며, 금년에는 계획수립비 전부(13.1억)와 사업비의 20%(280억원)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과 연계가능한 각 부처의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3개 전문기관과 함께 행정·기술적인 사항도 지원할 계획이다. 근린재생형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추진주체 구성과 주민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실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계기반형은 현장여건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가 가능한 복합개발사업 등 앵커사업을 지자체 주민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금년에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제1회 광주 도시재생 선진지 투어

2014. 6. 21(토) 서울 권역 탐방(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쌈지길)

대 상 :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및 일반시민

참 가 비 : 학생 20,000원 / 1인 일반 25,000원 / 1인 [중식, 석식 포함]-(환불불가)

입금계좌 : 광주은행 055-107-015592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입금시 : 성명기재

기 간 : 2014. 5. 12(월) 09:00 ~ 6. 13(금) 18:00

접 수 : 전화(062-521-0025~6) 및 메일(광주건축사회 gjkira@empal.com)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건축문화/시각/신문

건축사 만평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어른들의 무지로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린채...
천개의 바람되어 떠난
그대를 앞에 무슨 말로
위로 하겠습니까...

심 상 봉 건축사 작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문화사랑 신문, 2014년도 신임 논설위원 및 편집위원, 학생기자 위촉

- 지난 4월 28일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신임 편집위원 등 6인 위촉



본지 건축문화사랑 2014년도 신임 논설위원 및 편집위원, 학생기자 위촉식이 지난 4월 28일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임기만료 위원에 대한 격려 및 논설위원 2인 위촉, 신임 편집위원 1인 위촉, 호남지역 4~5년제 대학교 건축 관련 학과 학생기자 3인에 대한 임명식 등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길전 대표 발행인(광주건축사회장)은 “창간 이후 5년간 호남지역 건축 전문지로 자리 잡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번에 위촉된 신임 위원 및 학생기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논설위원 : 사람 건축사무소 신영은 건축사 / (주)공간동인 건축사무소 강필서 건축사 ▶편집위원 : 휴앤 건축사무소 박주현 건축사 ▶학생기자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우은하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양태선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고희정

광주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의 정책 방향, 시민 세미나 열려

- 지난 5월 13일, 양림동 어비슨카페에서 양림동주민자치위원회와 광주도시연대 주관으로



광주 남구 양림동의 역사문화마을 조성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시민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5월 13일 광주 남구 양림동 어비슨 기념관&카페에서 건축, 도시, 문화 전문가들과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류중석 교수의 ‘역사문화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와 (주)포유 건축사무소 박홍근 건축사의 ‘양림愛, “양림다움”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양림동 문화마을 조성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총 30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 개설·운영

- 지난 4월 30일부터 협회에 설치·운영, 유선 신고 및 홈페이지 통한 신고 가능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의 규제·관행 신고센터」를 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 및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방법은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와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향후 별도의 인터넷 카페가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될 것이므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관련 알림

건축법령 개정으로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관련하여 2012년 7월 19일 기준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2014년 7월 18까지 점검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건축사 회원들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00호)」 제5조 5.3.라.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제5조 5.1.가.에 따른 점검자 등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건축사회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교육”을 이수한 회원이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점검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 등록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점검업무에 대한 대가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세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00호)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gjkira.kira.or.kr) 120588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건축사 실무교육 안내

[광주건축사회]

- 1)교육기간 : 5. 23 (금) / 6. 27 (금) / 7. 25 (금) [총3회]
- 2)교육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 3)교육비 : 시간당 15,000원(60,000원/1회 4시간)
- 4)교육인원 : 시간당 120명/1회당
- 5)교육일정

구분	1회	2회	3회
	5.23 (금)	6.27 (금)	7.25 (금)
1교시(18:30~20:30)	건축관련 법규 / 서울건축사회 조총기 회장		
2교시(20:30~22:30)	에너지절약 계획서 작성방법 / (주)굿엔지니어링 김지성 대표		

6)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7)신청방법 및 기타사항 :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참조

[전남건축사회]

1. 교육종류 및 인정시간 : 전문교육 4시간
2. 교육일정 및 장소

일정	시간	교육과목	장소	수강대상
5/13(화)	13:30 ~ 15:30	경관디자인	전남여성플라자 2층 204호	목포 · 나주 · 장흥 지역 건축사 회원
	15:30 ~ 17:30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5/20(화)	13:30 ~ 15:30	경관디자인	순천 청암대학교 청암관지하 세미나실	순천 · 광양 · 여수 지역 건축사 회원
	15:30 ~ 17:30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수강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의 교육원사이트에서 사전 신청

[전북건축사회]

- 1) 교육 일시 : 2014년 5월 15일(목) 15:00~17:50
- 2) 교육 장소 : 국립 전주박물관 강당(1층) - 전주시 완산구 석고개로 249(효자동2가 900)
- 3) 수강신청기간 : 2014년 4월 30일(수)~5월 14일(수)
- 4) 교육 과목

교육구분	과 목	모집인원	교육인정시간	교육비	강사
윤리교육	건축사 윤리와 직업윤리	300명	윤리교육 1시간	10,000원	한명수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전회장)
자기개발 교육	건축기준(소방/피난)	300명	자기개발교육 1시간	무 료	강동석 (전북소방본부 장비담당)

5) 6월 전문교육 일정 안내(예정)

교육일정	교육장소	과 목(모집인원)	시간일정	교육비	강사
6.18(수)	전주 신일교회 ECM센터	친환경 건축설비시스템 (120명)	10:00~12:00 (2시간)	10,000/1h	최승길 박사 (주)선이앤씨
		친환경 패시브 건축(A) (120명)	13:30~15:30 (2시간)	10,000/1h	인익식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친환경 패시브 건축(B) (120명)	16:00~18:00 (2시간)	10,000/1h	

6)신청방법 및 기타사항 : 전북건축사회 홈페이지(http://jbkira.kira.or.kr) 공지사항 참조

2014 제9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한국농촌건축학회가 주관하는 ‘2014 제9회 한국농촌건축대전’이 다음과 같이 공모됐다. 이의 공모는 농촌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주제 : RURAL+URBAN =RUBAN / 농촌과 도시의 경계를 넘어.....
(농촌중심지활성화 계획)

준공건축부문[참가신청 : 5월1일(목) ~ 6월12일(목)]

공모작품_ 2009년 1월1일~2013년12월31일 사이에 준공완료 된 농촌지역 건축물
공모자격_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설계자 및 건축주

대 상 지_ 국내 농촌지역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공모일정_ 작품접수 : 6월12일(목) / 현장심사 : 7월초 예정

시상내역_ 대상(1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농어촌지역 아름다운 건축물' 명판 수여
본상(4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상 + '농어촌지역 아름다운 건축물' 명판 수여

계획건축부문[참가신청 : 5월1일(목) ~ 7월14일(월)]

공모주제 RURAL+URBAN =RUBAN / 농촌과 도시의 경계를 넘어.....
(농촌중심지활성화 계획)

대 상 지_ 전국의 읍·면소재지

공모자격_ 농촌주거와 생활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공모일정_ 작품접수 : [1차] 7월15일(화)~7월16일(수) / [2차] 8월25일(월) / [3차PT] 8월 마지막주

시상내역_ 대 상(1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 상금 500만원 + 해외건축 우수상(2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상 + 상금 200만원 + 해외건축 특 선(4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상 + 상금 100만원 + 해외건축 입 선(다수)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상

전북건축사회, 승효상 건축사 초청강연회 후원

-지난 4월 29일 전북대 박물관 강당에서 '우리 시대의 도시와 건축'이란 주제로 열려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김남중)는 지난 4월 29일 전북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전북대학교 한스타일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승효상 건축사 강연'을 후원·진행했다.

이날 강연회는 건축사 및 건축(공)학과 재학생, 건축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우리시대의 도시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승효상 건축사는 "우리의 건축은 자연과 주변, 인간과 조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가 조화한 풍경을 그렸다"며 "나아가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건축도 다원적 민주주의의 도시로 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땅에는 과거의 기억이 손금과 지문처럼 남아 있고 고유한 무늬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는 자연의 세월이 만든 무늬이며 일부는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연속적으로 새긴 무늬여서 땅마다 장대하고 존엄한 역사서만큼 귀하고 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효상 건축사는 서울대학교를 거쳐 빈 공과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수백당, 웰컴시티 등으로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1년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 감독을 역임했다.

News 광주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장성문 건축사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운천로 153
 - 고재학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가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 52-2, 2층
- * 진출**
 - 한진수 건축사 / (주)토방 건축사사무소 전라남도 전출
- * 변경(상호)**
 - 이종순 건축사 / 주식회사 공감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운로 310
 - 박상근 건축사 / 락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경양로 236번길 9-1 2층
- * 변경(상호, 소재지)**
 - 윤정태 건축사 / (주)에이치엔에이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5층
- * 변경(소재지)**
 - 왕성호 건축사 / 푸른&다에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유림로 147-1, 2층(동림동)
 - 광형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 광주 북구 유림로 147-1, 2층(동림동)
 - 전홍현 건축사 / 새광주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독립로 368번길 22(계림동)

News 전남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황상아 건축사 / 상아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비봉길 9, 스키아오피스텔 208호
 - 남승우 건축사 / 승화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우석로 58-0, 3층
- * 폐업**
 - 김미정 건축사 / (주)용창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 변경**
 - 백재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증현 전남 광양시 공영로 107, 4층
- * 결혼**
 - 박병엽 건축사 / 박병엽 건축사사무소 장남결혼 - 5월 11일
- * 부고**
 - 김맹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장 부친상 - 4월 2일

News 전북건축사회 동정

- * 진출**
 - 오미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휴담 충청남도 건축사회로 전출 / 건축사사무소 청담
- * 변경(소재지)**
 - 육광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채담 전북 전주시 완산구 김나루3길 4(서신동)
 - 이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원건축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299(진북동)
 - 정태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화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4-12(중화산동2가)
- * 결혼**
 - 김남중 건축사 /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 - 5월 30일 오후 6시 전주 오펜스 시크릿 가든홀
- * 부고**
 - 이흥구 건축사 / 이레 건축사사무소 빙부상 - 4월 09일
 - 유기천 건축사 / 성지 건축사사무소 빙모상 - 4월 22일

News 광주·전남·전북 5월 지역축제 안내

- ▶ 04. 04 (금) ~ 11. 11 (화)까지 제9회 빛고를 독서마라톤대회 - 빛고를독서마라톤대회(<http://bookmarathon.gen.go.kr/>)
- ▶ 04. 26 (토) ~ 05. 25 (일)까지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 - 전북 남원시, 지리산 바래봉 및 허브밸리 일원
- ▶ 04. 26 (토) ~ 05. 25 (일)까지 제59회 호남예술제 - 광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등
- ▶ 05. 23 (금) ~ 06. 01 (일)까지 곡성 세계정미축제 - 전남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 ▶ 05. 15 (목) ~ 05. 18 (일)까지 농동바다불꽃축제 - 전남 농동신항 특설무대
- ▶ 05. 23 (금) ~ 06. 01 (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대축제 - 전남 섬진강 기차마을
- ▶ 05. 29 (목) ~ 06. 01 (일)까지 2014 광주국제저문화전시회 -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25인, 제안일자 2014.05.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경주에 소재한 리조트시설 체육관에서 지붕이 붕괴되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대학생 등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체육관은 준공 당시 운동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음.
 - 이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5월 23일 본격 시행

(국회계류, 제안자 강창일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4.03.2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
- 주요내용
 - ①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 ②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 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
 - ③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용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음
- 국토교통부,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0.29.) (국토교통부령 제91호, 2014.4.28.,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가처분·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으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10일 이상"을 "7일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9항 중 "10일"을 "7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적격담점자의 소명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부적격담점자의 소명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광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세월호의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이길환	(주)길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이기성	(주)에이비엠그린텍	350,000원
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 느낌

실내 가드닝

이 지 영
광주광역시 봉선동



도시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어쩌면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을 수도 있다.

어떤 책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것을 키워보라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다.

식물을 키우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는 것을 시작해 보라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와닿아 집 앞 꽃집에서 작은 화분을 하나 사는 것이 실내 가드닝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언제 꽃이 필까 기다리면서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 주고 하루하루를 지켜보면서 지냈다. 꽃봉우리에서 점차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향기도 나고..... 무언가를 키운다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무엇보다도 작은 화분 하나에 즐거움을 느끼는 내가 신기하기도 했다.

그런 기쁨이 한 두 개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 화분을 여러 개 더 사기 시작했다. 지금은 꽃뿐만 아니라 허브, 다육식물,

녹보수, 행복나무 등등 베란다 전체가 마치 온실처럼 바뀌었다. 하나 둘씩 늘어나는 식물에 비록 내가 관리해야 하는 일들은 많아졌지만, 가드닝을 하면서 내가 찾은 일상의 여유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관심에 관한 부분이다.

식물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적절한 물과 햇빛, 바람을 줘야 그 식물이 크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가드닝을 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작은 식물조차도 관심을 갖고 가꾸어야 하는데 나는 내 인생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우고.....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중에 무언가를 하나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실내 가드닝을 통해 얻은 기쁨과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한편의시

김옥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지음

할머니

내가 울때면 당신의 빈 젖을 물리셨다던 할머니

고추밭 두엄옆에 날 뉘우고
고추농사를 지으셨다던 할머니

내가 학교갔다오니 “내 새끼” 하면서
몸배 바지 안쪽 주머니속에서 동생들 몰래
문어 다리 하나씩 빼서 주시던 할머니

내가 떠준 회색 털 모자가 제일 좋다고
겨울내 그것만 쓰시던 할머니

주말에 들린다고 전화드리면
마루에 앉아 대문만 바라보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보내신 후 정신이 흐려져서
이년 저년 하시던 할머니
왜.. 그때 그 소리를 다 못들어 드렸는지...
미안하고 죄송스런 마음에
두손모아 용서를 빌어봅니다.

“내 새끼” 하고 안아주실 나의 할머니.

책 소개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최부득 저 미술문화 2001.03.20

김현영 학생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님께 크리틱을 받았다. “이거는 1학년 수준이야” 우리 모두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설계인 졸업설계과목이었고 조원 모두 4학년이었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 ‘메세지’를 넣길 원하셨고 우리는 그 ‘메세지’를 찾기 위해 책을 찾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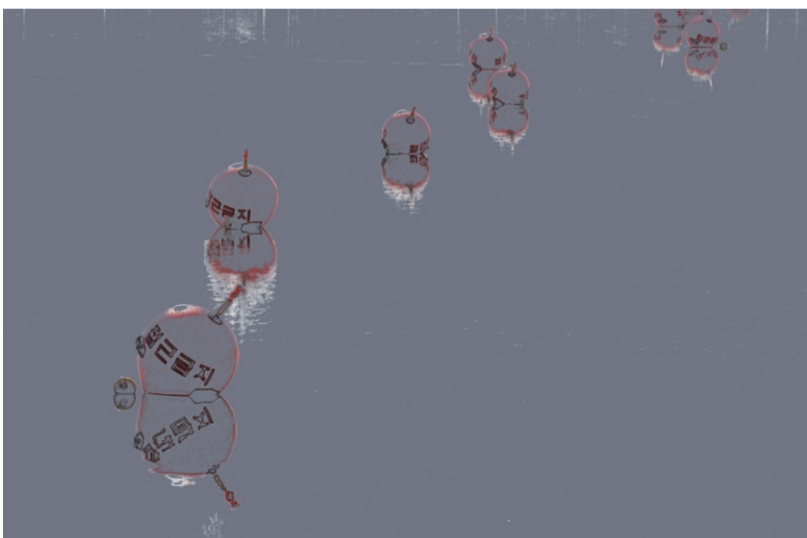
제목부터 심오하다.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저자는 그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 전통건축에 담긴 수많은 건축철학을 소개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예시와 적절한 못한 예시를 보여준다. 평소 전통건축에 대해 어느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를 깨우치는 계기가 된 몇 가지 주제가 있었

다. 첫째, 사이로 보는 맛이다. 사이로 보는 맛은 쉽게 말해 틈이다. 건물과 건물 사이, 지붕과 벽 사이, 기둥과 기둥 사이로 우연처럼 내다보는 풍경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이것은 옛 건축 속 누하진입을 통해 틈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낮은 층에 있을 때에서 마주하는 틈 속 사람의 행위로 인한 호기심과 계단 계단을 올라가며 넓어지는 하늘, 바람, 땅이 담겨있다. 두 번째, 비어 있는 곳이 건축이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에 있는 것”이라 하였다. 옛 건축 속 마당을 통해 역시 찾아볼 수 있다. 마당은 기둥이나 벽, 지붕으로 구성되

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위를 포용하는 하나의 건축공간으로 여긴다. 선조들은 마당에서 집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보다 어쩌면 더 많은 행위들, 결혼, 장례, 잔치, 김장 등을 행해왔다.

책이 얇았고 사진이제가 많은 것이 매력적인 부분이어서 쉽게 읽고 또 반복해서 읽으니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은 것 같았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메세지’도 어쩌면 지나가는 바람 하나, 햇빛 하나에 까지 의미를 담은 선조들의 지혜같은게 아닐까. 앞으로 졸업작품까지 한달 남짓 시간이 있다. 짧으면 짧은, 길다면 긴 이 시간동안 이 책과 함께 할 것이다.

건축사 Gallery



장소 : 전남 나주 승촌보

깊은 물가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위험 표지이다. 하지만 우리 건축사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많은 제약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지켜야 할 것은 일단 지키고, 아니다 싶은 것이 있다면 목소리 높여 고칠 것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정태호 건축사 작(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광주)

사진속 이야기



2014. 05. 벌천포에서 바라본 대산석유화학단지

가끔은 낮과는 다른 밤의 세상
무슨 일을 하기에 저리 밝은지...

박종호 건축사 작 유민 건축사사무소(전남)



유일한

광주·전남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새롭게 출범한 동아세라믹(주)는 지난 1995년 봉황세라믹스(주)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점토벽돌 생산의 기술력과 여러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점토벽돌 제조회사로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류 점토벽돌 제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점토바닥벽돌



점토미장벽돌

* 점토벽돌 시공사례



동아세라믹|주
DONG-A CERAMIC CO.,LTD.

본 사: 전남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134-7(구,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35)
Tel. 061-331-9000-2 Fax. 061-331-9003
서울지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801호
Tel. 031-737-7890 Fax. 031-777-8325